

##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 - 2001~2006년을 중심으로 -

최경옥<sup>†</sup> · 추미경 · 홍정화

원광보건대학 미용피부관리과,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전주기전대학 의상코디네이션과

## The Deconstruction Trend Expressed in the Works of Jean Paul Gaultier - Focused on Designs from 2001 to 2006 -

Kyung-Ok Choi<sup>†</sup>, Mi-Kyung Chu and Jeong-Hwa Ho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of Cosmetics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Jeongju Kijeon College of Fashion Coordination  
(2007. 1. 30. 접수: 2007. 3. 3. 채택)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works produced from 2000, the first year of the new millenium, to the late 2006 with a focus on those of Jean Paul Gaultier, a representative designer of deconstruction,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aesthetic characters of deconstructional fash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concepts and features of deconstruction as a part of analysis into its fashion using the works of Gaultier as a major source viewed to typically demonstrate the deconstructional characters of fash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155 works of Gaultier featured from 2001 to 2006 mostly in *Vogue*, the popular and influencing magazine of the USA(39 pieces in 2001, 30 in 2002, 29 in 2003, 23 in 2004, 12 in 2005 and 22 in 2006, respectively). In particular, 106 fashion pictures were put to analysis as they seemed to represent deconstruction intensively. The deconstructional characters of his works were examined in the categories of difference, inter-meaning, inter-textuality and decomposition on the basis of preceding studies, which resulted in the following outcomes:

First, difference was found in 38 works out of 106 images, accounting for 36%, the biggest frequency;

Second, inter-meaning accounted for 33% with 35 pieces, most frequently next to difference;

Third, inter-textuality followed inter-meaning with 17 images or 15% in terms of frequency;

Fourth, decomposition was revealed in 16 images in the same ratio of 15% as inter-textuality.

*Key words:* deconstruction(해체주의), difference(차연), inter-meaning(의미의 불확정성), inter-textuality(상호텍스트성), decomposition(탈현상).

<sup>†</sup> 교신저자 E-mail : kochoi@wkhc.ac.kr

## I. 서론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려는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화, 유연화, 개방화, 자유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패션에서도 이러한 세계화와 함께 다문화주의 패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진 패션에서의 탈(脫)모더니즘 현상은 각 분야에서 기성 가치가 무너지고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기존의 것들을 해체(deconstruction)시키려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sup>1)</sup>. 여기서 해체는 포스트구조주의(post structuralism)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에 포섭되는 하부개념으로 시대정신이나 대중의 세계관과 관련된 폭넓은 현상으로<sup>2)</sup> 패션에서는 다양한 소재, 과도한 노출, 기존 착용 형태의 파괴 등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해체주의 철학을 패션과 접목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는 전위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작품에서는 복식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다양한 컨셉의 의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티에 디자인이 전 세계인에게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그의 디자인이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패션디자이너 및 브랜드들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세계적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 패션 산업체들도 전통성을 고수하면서 21세기의 다양한 대중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감각의 미래 패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장 폴 고티에 해체주의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20세기말에 해당되는 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연구되었기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고찰은 더욱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대표적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의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2001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해체주의 패션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이론적 고찰로서 먼저 해체주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복식에서의 해체주의 특성을 고티에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01년부터 2006년 시기에 발간된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Vogue(미국판) 잡지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실린 장 폴 고티에 작품사진(2001년 39점, 2002년 30점, 2003년 29점, 2004년 23점, 2005년 12점, 2006년 22점) 총 155점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해체주의를 보여주는 패션 사진 총 106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해체주의 특성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등으로 나누어 분석 고찰하였다. 자료 수집은 해체주의 패션의 객관적인 파악을 위하여 의상학 전공자 3명과 함께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잡지에 실린 작품의 사진만으로 분석·고찰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해체주의 개념

‘해체’란 본래 기존의 구조에 대하여 다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가치를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허공에 매단 상태를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sup>4)</sup>.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에 의하여 개념화된 이 해체주의 철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적 흐름으로 포스트구조라는 큰 틀 내에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포스트구조주의

1) 최영욱,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2001), p. 575.

2) 박연주, “매니쉬룩(Manish Look)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23.

3) 이상례,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디자인연구소* (2002), p. 55.

4) 이광래, *해체주의의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1989), p. 372.

는 1960년대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구조주의의 기본적 특성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구조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인간적 능력의 한계, 표면적 갈등, 이면의 구조적 모순의 존재, 역사주의 등을 대체할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 실존주의적 사고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부각된 기호학적 특성을 갖는 사회과학운동으로 걸어서 드러나는 외양보다 그 근처에 숨어 있는 어떤 공통된 체계나 법칙을 찾으려 하였다<sup>5)</sup>.

해체주의 개념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 역전을 위한 전술과 힘을 오래된 구조로부터 차용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요소나 원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빌려오는 것으로 이것이 테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그리하여 테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은 본래 한 디자인의 존재성을 위한 은유적 형태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체와 디자인 사이의 관계를 특정한 디자인 사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어떠한 규범적 관습과 그로 인한 제조사를 위한 목표를 강요하는 지배적 개념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해체주의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 내부에서 탈구조하는 것으로 서구 철학 사상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디자인에도 적용되어 패션, 산업, 건축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 2. 해체주의 특성

본 장에서는 해체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해체주의 이론 및 패션에 관한 최근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와 해체주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선옥<sup>7)</sup>은 조형요소별로 분석하고자 하는 해체주의 특성을 의미의 불확정성(inter-meaning of meaning),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탈현상(break-

away from phenomenon)의 3가지로 분류하면서 해체주의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탈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 원리로는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 붕괴 등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이영재<sup>8)</sup>는 해체주의 특성을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차연의 유희, 타자성의 부각 등 4가지 해체이론을 내세우고 복식의 적용은 성, T.P.O, 탈중심, 전위, 탈구성, 무질서, 결정유보, 가려져 있던 것들의 전면대두, 역사성 등으로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체주의 특성을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한 최영옥<sup>9)</sup>은 차연(differences),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현상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차연을 테리다의 해체이론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들면서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의미의 불확정성에서는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주장으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나 자취, 또는 유사일 뿐이고,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으로 본 것이다. 또한 상호텍스트성에서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체주의 특성을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구성상의 표현방법으로 살펴본 조선희, 서경희<sup>10)</sup>는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 기표와 기의의 결합 체계의 해체, 닫힌 체계 내에서 지배받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열린사회·열린 사고의 추구, 언어와 기호의 재현에 대한 의미 체계의 전복으로 크게 상호텍스트성(병행인용·paracitation), 차연, 탈중심화, 의미의 불확정성(의미의 유보) 등 4가지의 해체주의 이론을 제기하면서 내세웠다. 여기서는 테리다 이론에

5) 박연주, *Op. cit.*, p. 23.

6) 이광래, *Op. cit.*, p. 373.

7) 노선옥,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권 1호 (1999), pp. 209-229.

8) 이영재,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9) 최영옥,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2001), pp. 574-591.

10) 조선희, 서경희,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Ⅱ," *산업기술연구* 15권 (2003), pp. 67-85.

서 구조주의의 이분법적인 대립 요소들이 각각 상호 보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대립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기술하면서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인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성의 도구인 언어가 유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이 해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류된 해체주의 특성을 최근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텍스트성은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호 인관성을 가지며, 형이상학적 관념 하에서 이분법적 논리로 통용되던 것들이 차연의 유희과정을 거쳐 상호 교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sup>12)</sup>. 또한 테리다는 한 텍스트(text)<sup>13)</sup>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 가운데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이 불가능하여 상호인용,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4)</sup>. 그리하여 모든 이항 대립적 요소들은 서로 배타적이고 상충적이기 보다는 서로 대체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는 ‘반복’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상호보완적인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다.

의미의 불확정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 혹은 텍스트 내부의 각 요소들의 의미가 무한하게 ‘확산(dissemination)’된다는 것이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지연은 언어가 재현하려는 현존의 끝없는 유보를 의미하여 텍스트 속에서 다른 요소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현존할 수 없으므로 의미는 본질과 영원히 차이를 갖게 되며 끝없이 유보된다는 것이다<sup>16)</sup>. 또한, 의미의 불확정성에서는 비지속성 기의와 기표간의 간극, 의미 소멸 등으로 해석되어 패선에서는 작장법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거나 작용자에 의한 차장 방법을 열린 형태 등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탈현상은 해체주의에서 종래의 기하학적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탈현상이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여 전위, 무질서, 파괴, 형태의 왜곡, 단편화, 분열, 붕괴(disruption), 불연속(discontinuity) 등으로 설명된다<sup>17)</sup>. 이는 조선희, 서경희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sup>18)</sup> 해체주의 특성 중의 하나로 본 탈중심화(de-centring)을 포함한다. 즉 탈 중심화 현상은 20세기 패선에서 엿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오리엔탈 룩의 창조나 민속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민속풍 그리고

<표 1> 해체주의 특성

연구자(연도)	노선옥(1999)	이영재(2000)	최영옥(2001)	조선희, 서경희(2003)
해체주의 특성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병행 인용) →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유보) → 의미의 불확정성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중심화 → 탈현상
	-	타자성의 부각	-	-
	-	차연의 유희	차연	차연 → 차연

11) 최영옥, *Op. cit.*, p. 69.  
 12) 이영재, *Op. cit.*, p. 25.  
 13) 텍스트(text); 테리다가 언급한 텍스트는 단순히 글자가 인쇄된 좁은 의미의 교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텍스트로 간주하여 인생이나 자연, 사회나 우주 그리고 역사도 텍스트이고 문자라고 하였다.  
 14)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59.  
 15) 정영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69.  
 16) 조선희, 서경희, *Op. cit.*, p. 72.  
 17) 노선옥, *Op. cit.*, p. 214.  
 18) 조선희, 서경희, *Op. cit.*, p. 70.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을 해체하며, 과거의 문화나 전통을 재평가하려는 역사주의 혼성모방 기법으로 영감의 중요 원천이 되기도 한다<sup>19)</sup>.

차연은 데리다가 기호가 완전히 현존(presence)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차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데리다는 이 용어에서 이중의 뜻을 부여하는데 하나는 차별하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지연하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sup>20)</sup> 시·공간의 초월을 의미하며 또한 수평과 수직의 대립이 파괴되고 시·공간의 개념이 해체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3. 패션에서의 해체주의 특성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는 20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후로도 열린 패션의 한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민자<sup>21)</sup>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열린 패션으로 정의 내린 것에 근거한다. 즉, 열린 패션은 내·외적 특성을 예술의 종말에 따른 패션의 민주화와 탈 권력예의 의지로부터 확고한 경계의 와해, 불확정성에 의한 다원주의에 따른 숭고미 그리고 그의 기법으로서 반(反)형식주의에서의 혼성모방 등을 나타냈다. 이러한 열린 패션의 특징인 경계의 와해나 불확정성에 의한 다원주의에 따른 기법 등이 해체주의 패션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면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는 열린 패션으로 볼 수 있다.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에서 빌 컴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패션계에서 해체주의 패션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89년 10월 파리의 마틴 마젤라(Martin Margiella)에 의한 90년 봄을 위한 쇼에서나<sup>22)</sup> 해체주의 패션은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디자인하고 구성하던 기존

의 경향을 해체시키고 의복의 형태를 신체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재구성한 양식으로써 해체주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패션에서의 상호 텍스트성은 복식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성, 지위, 나이, 예술 나아가서는 T.P.O 모두를 인용하여 패션과 반패션의 경계선에서 병행 인용으로 전환되고 다해석 가능성으로 나아가는다<sup>23)</sup>. 이에 해체주의 패션에서는 남·녀 성차를 거부하고 성이 사회학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주시하여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디자이너들은 남성과 여성의 개별적인 이미지보다는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써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매니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남성의 전용물로 사용되었던 덴디 슈트, 재킷, 베스트, 중절모, 회중시계, 지팡이 등의 아이템을 여성미와 조화시켜 표현하기도 한다.

해체주의 패션에 있어서 의미의 불확정성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무한히 개방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sup>24)</sup>, 착용자에 따라서 착용 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인 형태나 열린 형태로 표현된다. 여기서 열린 형태란 무형식의 표현기법으로써 특별한 원리나 형식을 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완성되는 미완성 상태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러한 복식의 대표적인 예로써는 일본 전통 복식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전통 복식은 착용자의 복식 착용법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이며 직선적으로 구성된 기모노의 레이어링, 오비(帶)의 두름 등으로 착용자가 의도하는 형태로 연출된다. 또한, 일본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는 미완성의 상태로 2차원적인 구성방법에 의한 3차원적인 입체감으로 표현하여<sup>25)</sup> 걸치기, 감기, 매기 기법 등으로 여러 겹의 의복을 레이어링 시켜 불확정성의 복식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탈취상은 해체주의 특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

19)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2004), p. 260.

20) 최영옥, *Op. cit.*, p. 576.

21) 김민자, *Op. cit.*, p. 256.

22) 이영재, *Op. cit.*, p. 23.

23) 강은주,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20.

24) 최영옥, *Op. cit.*, p. 580.

25) 채금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p. 242-243.

위, 무질서, 파괴, 형태의 왜곡, 단편화, 분열, 붕괴, 불연속 등을 패션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탈구성에 의한 무질서한 디자인과 탈 중심으로 표현되는 기존의 구성 파괴, 변형, 왜곡, 과장의 형태로 나타난다<sup>26)</sup>. 즉, 탈구성이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 분석하여 어떤 구조적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서로 관계없는 것끼리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거부한다<sup>27)</sup>. 이러한 탈현상의 대표적인 예는 팝 가수인 마돈나의 무대 의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속옷인 브라지어나 팬츠 가터벨트 등이 겉옷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질서는 복식의 구성규범이나 관습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로서 이러한 패션디자인의 예로서는 하위문화의 펑크 패션을 들 수 있는데, 거대한 크기나 파괴, 혐오, 과격 등을 나타내는 무절제한 의복으로 표현되어 무질서한 추(醜)가 강조된다<sup>28)</sup>. 그리고 이외에도 타문화권의 패션에 시간의 개념을 해체한 오리엔탈풍이나 민속풍의 에스닉스타일도 탈현상의 해체주의 패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패션에서의 차연은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킨 복고풍의 형식이나,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하거나 과거의 일부가 혼적으로 존재하면서 현대의 소재와 감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이후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로미오 질리(Romeo Gigli), 지아니 베르사체(Giani Versace) 등의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대를 초월하는 과거 이집트나 그리스, 바로크 등의 복식 일부를 패션에 반영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sup>29)</sup>. 또한 파코라반(Paco Rabanne)은 60년대 우주풍을 유행시켜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리고 채인 등을 이용한 미래 패션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골티에도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과 코르셋의 바디스 등을 차용한 모방으로 미래의 사이보그까지 한 의복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속성들이 모두 혼재하여 해석을 확장시키는 분열에 따른 모방도 보여주었다<sup>30)</sup>.

이처럼 해체주의 패션은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탈현상, 차연 등의 특성으로 패션 텍스트사이의 경계를 허물지만 전통적인 미적 원리를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미적으로 독창성을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 패션에서의 해체주의 특성

패션에서의 특성	내적 조형성	표현매체
상호텍스트성	복식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성, 지위, 나이, 예술, TPO 등의 병행인용- 남녀 성차 거부, 중성적인 성향	남성 전용물의 슈트, 재킷, 중절모, 회중시계, 지팡이 등
의미의 불확실성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무한한 개방공간 구성 특징- 착장방법을 달리한 불확정적인 열린 형태	일본 기모노의 레이어링, 오비의 누름 등 연출, 미완성된 옷의 형태 표현을 위한 걸차기, 간기, 배기 기법 등
탈 현상	전위, 무질서, 파괴, 형태의 왜곡, 단편화, 분열 등- 기존의 의복구성 파괴, 변형, 왜곡, 과장의 형태	에스닉스타일속옷 브라지어, 팬츠 가터벨트 등
차연	시·공간의 초월, 과거의 일부를 혼적으로 존재하고 재구성- 과거·현재·미래의 복식 결합시킨 복고풍	이집트, 그리스, 바로크 풍의 표현,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 코르셋의 바디스, 미래의 사이보그 풍 등

26) 이영재, *Op. cit.*, p. 45.

27) 이영재, *Op. cit.*, p. 27.

28) *Ibid.*

29) 최영욱, *Op. cit.*, p. 579.

30) 양학미, 김민자,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복식* 50권 1호 (2000), p. 81.

### Ⅲ.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분석

본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Vogue지에 발표된 장 폴 고티에의 해체주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차연(36%), 의미의 불확정성(33%), 상호텍스트성(16%), 탈현상(15%)의 <표 3>과 같은 빈도순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상호텍스트성

고티에의 작품에서 상호텍스트성은 17점 이미지로 전체 15%로 나타났다.

상호텍스트성은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배경하에 성이 해체되고 이것이 복식에 내재되면서 성의 상호텍스트성을 이룬다고 볼 때,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상호 교차하여 성의 해체에 도달하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티에의 성의 해체 경향은 아이템의 공유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양성의 특징적 아이টে을 한 의상에 조합시킴으로써 양성이 공유된 통합성을 표현한다거나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중성적인 느낌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림 1>은 남성의 테일러드 재킷에 여성의 스커트를 연장시켜 만든 드레스형 외투로 복합적인 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2>에서는 1970년대 핑크족이 유행시킨 검정 가죽재킷과 여성의 전용물인 스커트를 조합한 양식으로 이 또한 복합적인 성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1970년대 초 팝스타들의 무대 의상에서 보여진 뉴 웨이브 패션은 1980년대로 확대되면서 '앤드로지

너스 룩(androgynous look)'으로 유행하게 된다. 앤드로지너스 룩 역시 단순한 유니섹스를 넘어 양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복과 남성복의 성격을 탈피하여 상호 텍스트성으로 보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기존의 고티에 작품에서 자주 보여졌던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등의 자유로운 감성으로 크로스 오버시켜 성차가 없는 의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여성화를 보이는 작품은 없었지만, 여성의 남성화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이 상호텍스트성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림 3>은 남성적 이미지의 체크 무늬 베스트와 바지, 셔츠 위에 벵타이, 모자 등을 여성복으로 표현하였고, <그림 4>는 스트라이프 부늬의 셔츠와 서스펜더 팬츠를 입고 짧은 머리로 남성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여성으로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특징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티에는 남성예복인 연미복(tail coat)을 여성복에 표현함으로써 남성 또는 여성의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남녀 모두를 위한 공동의 패션을 제안한 것으로, 성을 초월한 제 3의 성의 영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5).

이처럼 고티에는 1990년대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남성복에 직접적으로 여성 스커트를 도입시켜 남성복에 대한 전통적인 복식개념을 해체시켰다면 최근에는 편 스트라이프 슈트, 모자와 같은 남성복 아이টে을 직접 여성패션에 도입시킨 디자인 등으로 변화된 것을 엿볼 수 있다.

#### 2.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의 불확정성은 본 연구에서 35점(33%) 이미지에서 보여졌으며 차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

<표 3>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요소별 빈도 수

특성 \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빈도%)
차연	6	8	10	5	4	5	38( 36)
의미의 불확실성	15	5	5	5	3	2	35( 33)
상호텍스트성	4	3	4	2	2	2	17( 16)
탈 현상	3	5	4	0	3	1	16( 15)
합계(빈도%)	28(27)	21(20)	23(22)	12(11)	12(11)	10(9)	106(100)



〈그림 1〉 *Vogue* Vol. 193 No. 1 (2003) p. 74.



〈그림 2〉 *Vogue* Vol. 191 No. 9 (2001) p. 254.



〈그림 3〉 *Vogue* Vol. 194 No. 9 (2004) p. 690.



〈그림 4〉 *Vogue* Vol. 193 No. 9 (2003) p. 649.



〈그림 5〉 *Vogue* Vol. 191 No. 10 (2001) p. 261.

났다.

이 개념은 골티에의 작품에 착상방법의 불확정성의 원리와 용도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나타났다. 의미의 불확정성은 복식의 착상방법에 있어서 착용자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 형태 혹은 열린 형태나 미완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6〉은 가죽 재킷을 완전히 착용하지 않고 반쯤 착용한 모습으로 착용자와 의복 사이의 형식을 없애 무형식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디자인의 응용이라 할 수 있다.

골티에는 〈그림 7〉과 같은 인체 구조를 초월한 재단방법을 사용하여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유동적인 선이 재창조되는 무형식의 표현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의복의 용도를 해체시켜 그의 의미를 불확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용도 해체의 예로는 소재와 무늬 개념에 대한 해체와 착용 용도

의 해체를 들 수 있다. 골티에는 〈그림 8〉에서 운동복 소재인 스판덱스를 여성적인 매력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면과 레이스를 덧붙여 우아한 분위기로 나타내 주었다. 또한 패션 소재이기 보다는 실내 장식의 패브릭과 같은 용도로 적당한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외투 〈그림 9〉를 포멀한 이브닝 드레스 위에 걸쳐 크로스 오버시킴으로써 소재의 용도를 해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일반적인 이브닝 드레스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데, 뒷길 등판에 마치 꽃과 나무, 나비가 날아다니는 정원이 담긴 모습을 표현하여 장식적 용도를 무각시킴으로 용도의 해체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골티에는 〈그림 11〉에서 일반적인 복식과 군악대 이미지의 모자와 악기 등 서로 관련성이 없는 이미지들의 아이템들을 서로 차용·조합하여 착용시킴으로 용도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의미의 불확정성에서 골티에는 이전의 의복 형태나 착용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한 작품으로 히피풍이나 기모노 착용법 그리고 과거를 회상한 작품 등으로 나타냈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2001년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매체인 패브릭, 꽃, 나무, 악기 등용 의복에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 *Vogue* Vol. 191 No. 3 (2001) p. 559.



〈그림 7〉 *Vogue* Vol. 192 No. 4 (2002) p. 278.

### 3. 탈현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탈현상은 16점 이미지로 전체 15%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여지는 탈현상으로는





〈그림 8〉 *Vogue* Vol. 195 No. 4 (2005) p. 363.



〈그림 9〉 *Vogue* Vol. 194 No. 9 (2004) p. 196.



〈그림 10〉 *Vogue* Vol. 191 No. 9 (2001) p. 346.



〈그림 11〉 *Vogue* Vol. 196 No. 3 (2006) p. 506.

타자성의 부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속옷의 겹옷화 현상, 서양복에서 동양복 요소의 부각 등이다.

즉, 탈현상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탈구성에 의한 무질서한 디자인과 탈중심, 위치전환으로서의 진위, 변형, 왜곡, 과장된 형태로 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그림 12〉는 모피로 만들어진 원피스형 란제리 스타일로 기존에 고티에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는 속옷의 겹옷화에 따른 탈구성으로 보여지며, 란제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소재의 기준을 깬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3〉은

일반적인 플레ங스(full-length) 개더 스커트인데,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룩(see-through look) 형태로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어 복식의 탈구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티에는 성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판가수 마돈나의 무대 의상을 통하여 금속 코르셋, 원추형 브라, 코르셋 슈트 등의 색시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스타일 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림 14〉 역시 원추형 브라 형태의 시스루 드레스로 속옷의 형태를 겹옷에 믹스한 탈구성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12〉 *Vogue* Vol. 193 No. 9 (2003) p.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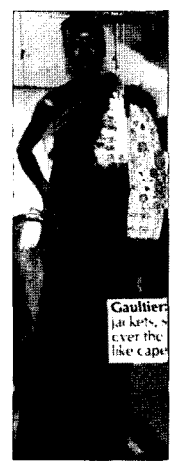
〈그림 13〉 *Vogue* Vol. 192 No. 5 (2002) p. 244



〈그림 14〉 *Vogue* Vol. 196 No. 4 (2006) p. 202.



〈그림 15〉 *Vogue* Vol.192 No. 5 (2002) p. 240.



〈그림 16〉 *Vogue* Vol. 192 No. 10 (2002) p. 314.

골티에는 서양복 중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타자인 동양복의 요소를 그의 작품에 부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억압받아왔던 유색인종의 문화가 중심문화로 부상되면서 고정되어 왔던 서구 중심의 역사관, 세계관이 해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그림 15〉는 스트라이프 무늬 펜츠에 중국의 전통복인 치파오(旗袍)를 〈그림 16〉은 검정색 원피스 드레스 위에 동양적 이미지를 풍기는 외투를 입혀 동·서양의 아이템 및 소재를 조합하는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그림 17〉에서도 서양복에 동양의 이미지를 보이는 무늬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림 18, 19〉는 동양복의 소재로 서양복을 디자인한 형식으로, 동양의 가채(加絨)를 응용한 헤어스타일을 함께 적용하여 보여주고 있고, 〈그림 20, 21〉은 일본의 전통복인 기모노의 조형적 형태를 응용하여 만든 드레스로 이 작품들은 동양의 것도 서양의 것도 아닌 동·서양이 혼합된 양식을 보여주는 디자인들이다. 이것은 서구인의 시각으로 디자인한 의상에 동양복의 요소를 부가한 레이스리스(raceless) 양식 즉, 제 3의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탈현상에서는 속옷의 걸옷화에 따른 탈구성, 서양복에 동양적 이미지 도입, 동양의 가채

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적용하는 등 동·서양이 믹스된 탈구성 등의 스타일로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 이전의 속·걸옷의 해체와 동·서양의 해체 등으로 표현되었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표현매체가 훨씬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엿볼 수 있다.

#### 4. 차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차연의 작품은 총 106점의 이미지 중에서 38점으로 전체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차연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차연의 의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리되고 새롭게 다시 결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가 덧붙여진 혼종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골티에는 그리스 시대의 복식인 ‘키톤’의 드레이퍼리한 이미지를 디자인에 응용하여 〈그림 22, 23〉과 같은 양식을 제시하였으며,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장식을 세시한 스타일을 〈그림 24〉와 같이 보여주었다. 이는 과거의 복식을 단순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 흔적을 가지고 현대적 이미지로 재창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림 25〉와 같은 1900년대 초기의 ‘S-curve 실루엣’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나 〈그림 26〉의 1930년대 ‘Long & Slim 실루엣’을 보여주는 디자인도 과거의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



〈그림 17〉 *Vogue* Vol. 191 No. 10 (2001) p. 345.



〈그림 18〉 *Vogue* Vol. 191 No. 9 (2001) p. 346.



〈그림 19〉 *Vogue* Vol. 191 No. 9 (2001) p.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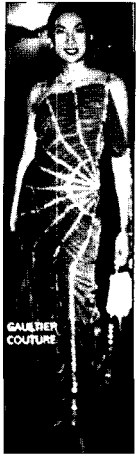


〈그림 20〉 *Vogue* Vol. 192 No. 4 (2002) p. 194.



〈그림 21〉 *Vogue* Vol. 193 No. 1 (2003) p. 70.

31) 이영재, *Op. cit.*, p. 28.



〈그림 22〉 *Vogue* Vol. 194 No. 1 (2004) p. 40.



〈그림 23〉 *Vogue* Vol. 193 No. 9 (2003) p. 312.



〈그림 24〉 *Vogue* Vol. 192 No. 10 (2002) p. 312.



〈그림 25〉 *Vogue* Vol. 193 No. 10 (2003) p. 371.



〈그림 26〉 *Vogue* Vol. 193 No. 10 (2003) p. 353.

조명한 복고풍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공간의 조율을 의미하는 차연의 특징이 나타난 사이버 룩(그림 27)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고티에는 가수 마돈나가 착용하여 널리 알려진 금색 코르셋을 대표적으로 등장시키면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기도 하였다.

차연의 또 다른 양식은 오랜 시간 동안 닳은 듯한 흔적이 의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의 차연이었다. 그 예로 〈그림 28〉의 유럽 하층민의 이미지를 응용한 '푸어룩(poor look)', 〈그림 29〉의 1970년대 후반 영국의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street 패션인 '펑크룩(punk look)'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천에 슬래시를 내거나(그림 30 左), 울을 풀어 만든 이브닝 드레스(그림 30 右)에서도 흔적의 차연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28〉 *Vogue* Vol. 194 No. 2 (2004) p. 220.



〈그림 29〉 *Vogue* Vol. 192 No. 6 (2002) p. 110.



〈그림 27〉 *Vogue* Vol. 193 No. 5 (2003) p. 224.



〈그림 30〉 *Vogue* Vol. 191 No. 4 (2001) p. 206.

이처럼 2001년 이후 골티에 작품에서 차연은 1900년대의 S-curve 실루엣의 도입, 1930년대의 Long & Slim 실루엣을 재조명한 복식 그리고 1970년대의 펑크룩 등 과거 흔적의 차연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2001년 이전 골티에 작품에서 나타났던 이집트나 바로크 붐 그리고 중세풍의 기사 복식 등으로 표현된 이후 시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 분석 결과,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요소별 특징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IV. 결 론

20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진 패션에서의 탈보더니즘 현상은 21세기에도 연결되어 다양한 해체주의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 작품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Vogue(미국판)에 실린 작품사진을 분석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정 기간에 연속적으로 발간된 잡지자료를 중심으로 고티에의 일반적인 패션에서 보여 지는 해체주의의 경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해체주의 특성을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탈현상, 차연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텍스트성에서는 17점 이미지로 전체 15%로 나타났는데, 이 특성은 성의 해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패션에서는 엔드로지너스 룩이나 남성과 여성의 한쪽 성만이 아닌 공동의 패션을 제안하였다.

둘째, 의미의 불확정성은 35점(33%) 이미지에서 보여졌으며, 차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특성에는 착장방법의 불확정성의 원리와 용도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나타났는데 착용자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불확정적 형태 혹은 열린 형태나 미완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무형식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디자인의 응용, 소재와 무늬 개념에 대한 해체와 크로스오버 스타일, 서로 다른 아이템들의 차용·조합 등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탈현상은 16점 이미지로 전체 15%로 나타났는데 이 특성은 탈구성에 의한 무질서한 디자인과 탈중심, 위치전환으로서의 전위, 변형, 왜곡, 과장된 형태로 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패션에서는 속옷의 형태를 겉옷에 믹스한 탈구성, 서양복에 동양적 이미지의 조합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연은 총 106점의 이미지 중에서 38점으로

<표 4>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요소별 특징

해체주의 요소	디자인 특징
상호텍스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em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공유, 중성적 느낌의 <i>Androgynous look &amp; Punk look</i></li> </ul> </li> <li>- 남녀 모두를 위한 공동 패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 예복(<i>tail coat</i>)을 여성복으로 표현</li> </ul> </li> </ul>
의미의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식의 표현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에 반만 걸쳐진 형태의 재킷</li> </ul> </li> <li>- 인체구조를 초월한 재단 방법</li> <li>- 용도의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와 무늬 개념 해체</li> <li>· 관련성 없는 이미지의 Item 차용·조합</li> </ul> </li> </ul>
탈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옷의 겉옷화 현상</li> <li>- 서양복에 동양복의 요소를 부각시킴</li> </ul>
차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 차이+시간적 지연(과거+현재+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직(복고풍의 양식, <i>Poor look, Punk look</i> 등)</li> <li>· 미래(<i>Cyber look</i>)</li> </ul> </li> </ul>

전체 3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차연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의 의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리되고 새롭게 다시 결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가 덧붙여진 흔적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는 과거의 복식을 단순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 흔적을 가지고 현대적 이미지로 재창조한 복고풍의 양식, 그룬지룩, 푸어룩, 펑크룩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장 폴 고티에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 패션에서의 해체주의 특성은 앞으로 미래 패션에서도 계속적으로 표현될 패션 트렌드이다. 이제 해체주의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하이패션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위문화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 개발 및 새로운 미래 패션 감각에 반영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앞으로 국내 패션 산업이 세계적 브랜드와의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하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은주 (1995).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 방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 노선옥 (1999).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 베이 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권 1호.
- 박연주 (1994). “매니쉬룩(Manish Look)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학미, 김민자 (2000).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복식* 50권 1호.
-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 이상례 (2002).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디자인연구소.
- 이영재 (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윤 (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교 (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희, 서경희 (2003).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Ⅱ.” *산업기술연구* 15권.
-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최영욱 (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 Vogue* Vol. 191.
- Vogue* Vol. 192.
- Vogue* Vol. 193.
- Vogue* Vol. 194.
- Vogue* Vol. 195.
- Vogue* Vol. 196.